익산시, 추석연휴 13~18일까지 관광 안내소운영 · 해설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추석당일제외) 6일간 관광안내소 운영과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에서 근무하는 28명의 관광안내 근무자들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명절 기간에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복인 한복을 입고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익산의 맛 집과 특산물, 역사문화 등을 소개한다. 친절한 관광안내와 흥미로운 문화관광해설로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익산'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익산의 역사와 문화와 맛을 느끼고 여행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명절 기간에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세계문화유산 익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군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활동을 벌인다.

군산시는 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인 13일까지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등 우심지역에 대해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어 21일까지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의 장기 미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

지난 9일 중앙체육공원일원에서는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주)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LP가스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9일부터 개최되는 '2016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일정에 맞추어 진행됐다. 건강한 명절나기 안전상식 및 화재 예방요령, 소방출동로 양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대비 안전수칙 홍보물 등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 후에는 중앙동 지역 독거노인, 거동이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등 재난취약가구 8세대를 선정해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익산지사, 전북에너지서비스(주)가 함께 전기, 가스 분야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9월 재산세 268억원 부과

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2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8000건 223억원과 주택 2기분 3만2000건 45억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252억원 대비 16억원(6.3%)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신규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통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납부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고용노동부군산지청,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은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당초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운영 하기로 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2016년말, 2017년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기회가 마련됐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1인당 3만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 관계자는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연장 기간 중에 조선업 종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제7공수특전여단, 천마상 제막식 거행

특수임무 수행 천마부대 역사 계승 · 장병들 자긍심 고취 위해

육군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은 지난 9일, 부대를 위해 도움을 주신 지역기관장, 기업대표, 예비역 전우 등을 부대로 초청한 가운데 여단 상징탑인 '천마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내빈소개-감사장 수여-건립경과 보고-건립취지문 낭독-제막 그리고 7공수특전여단장(준장 박우영)의 기념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7공수특전여단의 부대상징인 '천마(Pegasu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달린 백마로 1974년 10월 1일 부대창설 이래 여단의 상징물로 그 역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천마부대로서 42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천마상징탑이 없었기에, 전·평시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천마부대의 역사를 계승하고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애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추진됐다.

제한된 예산과 많은 건립비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안되면 되게하라!"는 특전신조를 바탕으로 제7공수특전여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장경석 특수전사령관, 익산시장, 기업대표, 각종단체, 특전사 출신 예비역 전우들의 아낌없는 도움이 이어졌고, 특히 부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 여단 전 장병의 자율모금까지 더 해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더욱 더 뜻 깊은 의미가 됐다.

부대상징탑인 '천마상'을 제작한 아리울조형연구소 강용면 작가는 "최초에 천마라는 보기 드문 조형물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많은 비용에 비해 여단의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며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특전사 장병들을 위해 제작에 필요한 최소 예산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 이어서 국군장병 위문공연 단체인 백룡컴퍼니 후원으로 천마상 제막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걸그룹, 파워트로트, 벨리댄스팀 등이 출연한 힐링콘서트를 실시하여 장병들의 큰 인기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한 7공수특전여단장(준장 박우영)은 기념사를 통해 "혼자 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동참해준 특수전사령관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천마상'을 바라보며 자긍심을 가지고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강 최고의 천마부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안심인증원룸 12호 인증패 부착식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8일 관내 강절도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원룸중 방범시설이 잘 갖춰진 원룸을 대상으로 안심인증 원룸 12호로 선정, 김성중 서장, 서영주 생활안전과장과 김용대 중앙지구대장 및 이용규 생활안전협의회장, 장양원 생활안전협의회 총무, 모송자율방범대장, 조미자 공인중개사, 원룸주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패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인증패 부착식은 기 추진중인 원룸안심인증제 일환으로 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원리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인증패 부착의 홍보 효과에 따라 주변 원룸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위방범의 식을 확산토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번 제 12호 안심인증원룸은 모현동 소재 '스마트빌' 원룸으로 관내 원룸중에 CCTV 설치, 가스배관 가시캡 설치, 방범창 설치여부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평가·점검한 결과 최종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원룸안심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에 따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원룸 안심인증제를 통한 예방치안과, 참여치안, 과학치안의 조화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원룸 안심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추석 귀성객 쾌적한 고향이미지 선사위해 '구슬땀'

군산시 전역에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에게 깨끗하고 정겨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청결활동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옥구읍은 지난 9일 직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옥구향교를 비롯해 화봉재, 추모재 등 관내에 있는 문화재 5개소에 대해 수목정리, 예초·제초 작업, 병충해 방제 등 환경정비와 미관 개선에 나섰다.

옥산면(면장 심문태)은 추석전 대려·망동·접산마을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분묘 1635기와 진입로(35km)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날 군산시 투자지원과와 소룡동 주민센터 직원 20여명은 국가산업단지와 오식도동 주택단지 등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에서는 산업단지와 오식도동 주택단지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불법광고물 수거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했으며, 오는 13일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산단 내 소공원, 버스승강장 등 시설물 점검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동(동장 김종진)에서 펼쳐진 청결활동에는 시청직원 및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해 추석 연휴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 롯데마트 일대 상가지역과 아파트 대단지, 공영주차장, 원룸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회현면(면장 장영재)은 직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비롯한 자생단체가 함께 참여해 폐기물 처리와 가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성묘객들이 찾을 공동묘지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해 집중관리에 나섰다.

경암동(동장 박식)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성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터미널과 철길마을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역 대표기업 군장에너지

추석맞아 사랑의 쌀 100포 전달

추석을 맞아 군산지역 대표기업체들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한 (주)군장에너지(대표 박준영)는 올 추석에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동참했다.

지난 9일 군장에너지는 소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100포를 전달했다.

군장에너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탁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어 군장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웃사랑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장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OCI 군산공장(공장장 이종우)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해 나눔의 활동을 이어갔다.

OCI는 이번 추석에도 구세군 후생원을 비롯한 지역 내 복지시설과 협약을 맺은 지역이동센터 8곳에 제철과일 및 물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OCI는 2007년부터 '천사봉사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그 후원금액은 총 7억 원에 달한다.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OCI는 이외에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후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독거노인·지체장애인 생활비 지원, 비문해 사업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재단법인 OCI 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이종우 공장장은 "OCI는 앞으로도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4-H회원 한마음 어울림 대회 개최

익산시 4-H본부는 지난 10일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서 지(知)덕(德)노(勞)체(體) 4-H정신으로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2016년 익산시 4-H회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6 회원대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소병홍 시의장, 채함석 전라북도 4-H본부 회장, 익산시 4-H본부, 영농4-H회, 학교4-H회원 및 지역 주요인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어울림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4-H회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회원 3명에 대한 익산시장의 표창과 우수학생 7명에 대한 익산시 4-H본부의 장학금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영농4-H회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경진과 학생 4-H 과제물 전시 경진, 영농4-H와 학생4-H회원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는 도전 골든벨 행사와 활쏘기, 금강탐방 등 체험행사, 체육행사 및 클로버의 향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행사는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사회운동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4-H이념 계승을 다져 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익산시 4-H회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익산시 4-H회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익산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감염관리 예방 활동 강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역시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에 분주하고 의료계 역시 각종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감염 예방 활동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에 심혈을 쏟기로 해 주목된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자와 방문객 모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각종 홍보 활동과 권고 안내를 통해 병문안 기준안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6일 첫 캠페인 활동을 시작한 원광대병원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매일, 직원들이 직접 환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수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군산도시가스

저소득세대 가스안전장치 설치 협약 체결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성택, 공공위원장 김종진)와 군산도시가스(대표 윤인식)는 '저소득세대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설치 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세대 중 가스 관리능력이 부족한 88가구를 선정해 가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도시가스는 각 가정을 방문해 가스콕 설치와 함께 사용설명과 노후 고무호스관 교체, 가스레인지 청소, 안전사고예방교육을 병행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송동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홀몸노인, 치매환자 등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진 수송동장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거나 외출을 해 가스 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가스안전사고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